

원불교의 대안교육

-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

權 東 祐

원광대학교

〈요 약〉

원불교에서는 현재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한겨레고등학교 등 5개의 고등학교와 성지송학중학교, 헌산중학교, 지평선중학교, 한겨레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 그리고 중·고 통합학교인 은혜학교까지 10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안학교는 모두 교육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인가형 대안학교이다.

원불교의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의 운영은 한국의 대안학교 역사에 있어 효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불교 대안교육은 어떠한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원불교의 교리사상을 근간으로 원불교 대안교육이 사요의 '타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사요의 정신이 일원상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은의 상즉성, 즉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식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로부터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사요의 정신인 '사회개혁'과 '소외'와 '차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적 인식을 토대로 원불교 대안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대안학교의 범람과 더불어 대안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대안교육을 또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어떠한 교육평등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점검하면서 대안교육의 미래적 방향을 설계해 가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핵심 주제어: 원불교, 대안교육, 타자녀교육, 소외, 차별, 사회개혁

I.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최근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안 학교 또는 대안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되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단 자살, 학교폭력과 왕따, 성적비관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살률, 초등학교에서부터 비롯되는 과도한 입시경쟁의 굴레와 사교육의 광풍 등 한국사회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의미는 무한경쟁의 시작이요, 치열한 생존경쟁의 전형을 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완전취학률과 낮은 중도탈락률, 그리고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83.4%) 등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교육의 질적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원불교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점에 대안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대안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0여개에 이르는 대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안교육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교단 내적으로도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은 교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어떤 교리사상적 근거로 대안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가? 또한 대안교육이 보편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불교 대안교육의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지향해 갈 바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 논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다만, 현재 대안교육의 현장에 처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대안교육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에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원불교의 교리사상을 근간으로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지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해 미력하나마 제언을 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II. 원불교 대안교육의 역사와 현황

원불교에 있어서 대안교육은 상당히 일찍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안교육은 대체로 그 범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학자 및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에서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번졌던 민중교육을 대안교육의 범주에 넣

1) 남기석,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대안교육』, 『시민인문21』(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45-46.

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운동을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1998년 2월 특성화학교가 법제화하는 것을 기점으로 일어난 대안학교를 대안교육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²⁾

이처럼 대안교육은 범주구분이 불명확하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말하더라도 원불교의 교육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다. 해방 전후의 문맹퇴치운동에 원불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1980년대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8년 정부에 의해 대안교육이 공식화하였을 때에도 정식 대안학교를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였다. 원불교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역사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정신은 원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타자녀 교육'의 정신이 현실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타자녀 교육'은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원불교 교육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 장을 빌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본 장에서는 원불교 대안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영산성지고등학교³⁾

원불교에서는 교육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영산선원 부설 영산고등공민학교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불교 영산선원 부근의 청소년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교육이 1982년 고등학교 과정으로 남녀공학 각종학교로 개편 인가, 1983년 학력인증학교로 인정받아 '영산성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개교하게 된다. 이후 영산성지학교는 지육(智育)과 덕육(德育), 체육(體育)의 기본적 교육의 바탕에서 전인적 인성의 계발 육성이라는 교육과제를 선행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 인간부재와 교육부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산성지학교는 인문계 교육위주의 교과과정에 치우치지 않고 도자기공예, 다원조성, 분재 및 난 재배 등 기술교육의 병행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영산성지학교의 인성중심, 학생중심의 열린교육은 한국판 서머힐로 각광받아 방송 및 신문, 잡지에 보도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고, 1996년 정부는 열린교육·인성교육·방과 후 교육활동 등 영산성지학교의 교육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일치함을 강조하면서 1997년 12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기존의 각종학교로부터 정식 고교졸업이 인정되는 정규 특성

2) 황준성·이혜영, 「대안교육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2권 1호(대한교육법학회, 2010), p.170

3) <http://www.yssj.hs.kr/>

화고등학교 1호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영산성지학교는 1998년 3월 ‘영산성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로 개교하게 된다. 영산성지고등학교를 통해 볼 때, 원불교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최근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원경고등학교⁴⁾

원경고등학교는 1997년 12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경주화랑고등학교’와 더불어 1998년 2월 5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59회 임시원의회에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경고등학교는 정산종사 탄생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원불교 교육이념에 따라 열린교육, 인성교육의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8년 3월 17일 학교법인 무련학숙 원경고등학교의 개교식이 거행되었으며, 이로써 교단 내 두 번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이자 경남지역 최초의 교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교훈은 ‘소중한 나, 은혜 속의 나, 마음 잘 쓰는 나’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사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학교이다.

원경고등학교는 마음공부를 통해 행복을 가꾸는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 개교 이후 마음공부를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매주 1시간 마음공부 원리를 익히고, 매주 2시간 마음일기 기재시간을 두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마음공부 정기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원경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소중한 나, 은혜속의 나, 마음 잘 쓰는 나’이다. 소중한 나는 인간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며, 은혜속의 나는 은혜를 알고, 보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며, 마음 잘 쓰는 우리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3. 경주화랑고등학교⁵⁾

1996년 원불교 성업봉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중등학교 정규과정의 교육에서 독특한 개성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칭 ‘한울안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1997년에 학교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98년에 ‘경주화랑고등학교’의 명칭으로 설립인가가 내려져 개교하게 되었다.

경주화랑고등학교는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기숙하면서 사회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4) <http://www.wonkyung.hs.kr/>

5) <http://hwarang.school.gyo6.net/>

로 한 올바른 가치체계와 판단기준을 알게 하고 본인이 가진 창조적 소질을 계발시킴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학생, 스스로가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모두를 존경하며 예의와 대의를 잃지 않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성지송학중학교⁶⁾

원불교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는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한 대안고등학교의 설립이 법적인 인가를 받기에 이르러 안정적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중도탈락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중등과정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9년 중등과정 학교설립 추진 발의가 이루어져 2002년 최초의 중등과정 대안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특성화중학교 중학과정 설립추진을 발의하여 2001년 원불교 중앙총부 원의회 특성화중학교 기관 설립 결의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 동년 10월 31일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성지송학중학교 설립인가가 나왔으며, 2002년 개교 및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는 다가올 미래에 요구되는 원만한 인격, 창조적 지혜, 상생의 봉공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과 세계의 주인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다리 구실을 함은 물론,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둔 자율학교로 나아가며, 인성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5. 현산중학교⁷⁾

현산중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위치한 사립특성화 중학교이다. 도시빈민과 비행청소년 교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열반한 원불교 교역자 현산 길광호 교무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대안학교이다. 2001년 9월 19일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결의하여, 2002년 12월 24일 학교설립 인가 및 특성화학교 인가를 받았다. 2003년 3월 초대 오병갑 교장이 취임하여, 3월 5일 개교식을 가졌다. 동년 11월 15일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현산중학교는 원불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친화적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업 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특

6) <http://sjsh.ms.kr/>

7) <http://www.heonsan.ms.kr/>

성화 중학교이다. 교육활동은 학교의 특성화 방안으로 인성 중심의 열린 교육, 마음공부를 통한 품성의 함양, 학생 중심, 실천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동체 생활과 자연 친화의 살림 운동,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 교육방법 개선과 새로운 평가 모형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색 사업으로는 정보·소양 인증제 실시, 방과 후 전교생 동아리 활동을 꼽을 수 있다.

6. 지평선중·고등학교⁸⁾

2002년 지평선중학교 설립인가를 통해 개교하였으며, 2003년 3학급 정원 60명으로 입학식 및 개학식을 하였다. 지평선고등학교는 2010년 개교하여 2011년에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지평선중학교의 교육철학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입각하여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뤄 인류에 봉사할 줄 알고, 낙원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중학교이다.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한 자력의 양성과 현장실습,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은 과학·도학·인문학을 바탕으로 배워서 알게 되고, 알아서 실천하는 참된 ‘자력’을 가진 인재교육이며, 교육목표는 자아의 주체성을 찾고 알아가는 인재,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인재,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 삶을 즐기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있다.

7. 한겨레중·고등학교⁹⁾

2004년 3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설립을 제의하였으며, 동년 7월 22일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이 승인되었다. 2005년 4월 15일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동년 7월 11일 경기도 교육청과 안성교육청으로부터 일반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6년 1월에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2월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으며, 동년 3월 1일 학교 개교 및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사회에서 받은 다양한 문화적 충격을 적절히 잘 소화하여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간의 학습공백과 학령 및 학력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남한사회에서 올바른 진로선택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http://www.jipyongseon.kr/>

9) <http://www.han.hs.kr/>

교육목표는 ①기초질서의 생활화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민주인), ②바른 인성 함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협동인), ③정보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창의인), ④개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기 생활을 개척하는 사람(자주인), ⑤기초체력을 신장하여 심신이 자유로운 사람(건강인)로 하고 있다.

8. 은혜학교¹⁰⁾

현산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와 더불어 학교법인 전인학원에서 설립한 대안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의거하여 학습부진아동 및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통합형 대안학교이다. 특히 은혜학교는 학습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가출청소년과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학교이다.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은 ①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②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편성, ③전교생 기숙사생활, ④개인에 맞는 능력별 수업, ⑤다양한 현장체험 학습, ⑥가정을 대신하는 학교, ⑦자원봉사제도(일일교사) 활용, ⑧열린 교육공동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기본이 바로 선 아름다운 학교라는 이념 아래, ①인성교육: 원래 훌륭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아 인생을 설계하고 공부하는 공부인을 기른다, ②체험교육: 그 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넓혀가는 지혜로운 지력인을 기른다, ③열린교육: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양심 있는 실천인을 기르다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원불교에서는 현재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한겨레고등학교 등 5개의 고등학교와 성지송학중학교, 현산중학교, 지평선중학교, 한겨레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 그리고 중·고 통합학교인 은혜학교까지 10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모두 교육당국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인가형 대안학교이다.¹¹⁾

또한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전담하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불교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전개해 갈 것으로 보인다.¹²⁾ 이외에도 2004년 7월부터 ‘원불교 대안학교 협의회’를 결성하여 원불교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10) <http://eh-school.sc.kr/>

11) 영산성지고, 원경고, 경주화랑고, 지평선중·고, 한겨레중·고, 현산중, 성지송학중은 학력인정을 받는 특성화 중·고등학교이며, 은혜학교는 각종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12) 《원불교신문》2011년 3월 18일, “다문화중학교 설립 추진”; 2008년 8월 1일 “원불교 대안교육,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워크숍” 기사 참조.

겪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논의의 장을 열어두고 있다.¹³⁾

이상과 같이 현재 원불교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상황과 유형을 통해 원불교 대안교육의 특징을 규정해 본다면, 그것은 현재의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 혹은 ‘이탈’된 학생들을 위해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향이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평선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적응학생 혹은 중도탈락자와 새터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불교 대안교육이 유독 부적응과 중도탈락, 혹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왜 원불교 대안교육이 ‘부적응’ 혹은 ‘소외’, ‘이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원불교가 가진 교리사상적 기반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아갈 수 있다.

또한 원불교 대안학교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소외를 ‘치유’해 가는 교육방식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원불교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은 내적으로 자신의 치유를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치유되어 가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한 속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 인식해 가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불교 대안학교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음 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타자녀교육’의 이념과 대안교육

원불교 교리의 근간은 ‘법신불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으로부터 시작한다. 법신불 일원상이란 곧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모든 존재의 상즉성(相卽性) 즉 필연적 관계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신불 일원상은 곧 일체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존재의 상징인 동시에 만유 속에 내재해 있는 내재자로서, 모든 존재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전 존재는 서로 상즉적으로 영향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상즉적 관계를 소태산(少太山朴重彬大宗師, 1891-1943)은 사은(四恩)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은이란,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륜은(法律恩)으로, 이 네 가지 은혜는 곧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13) 《원불교신문》2004년 7월 16일, “원불교 대안학교 협의회 첫 모임”

14)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p.140.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에서는 근원적 진리인 일원상과 사은의 관계를 상즉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진리의 본체와 현상을 일원적(一元的) 관계로 보고 있다. 일원상의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의 본질로서의 체성(體性)이라면, 사은은 진리가 현실을 통해 현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묘용(妙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성과 묘용의 일원적 관계에 의해 모든 세상의 구조와 관계를 은(恩)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원불교의 진리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라도 그 존재가 가진 속성은 본래 은혜(恩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존재가 은혜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知恩), 그로부터 나라는 한 존재가 모든 존재들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상즉적 관계에 대한 보답으로서 보은(報恩)해 갈 것을 강조한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곧 모든 존재에 대한 은혜의 관계에 대한 자각과 그에 대한 보은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 특정한 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이라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변화에 역할해 갈 수 있는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을 밝혀 사요(四要)라 하였다. 사요는 자력양성(自力養成)·지자본위(智者本位)·타자녀교육(他子女教育)·공도자승배(公道者崇拜)이다.

원불교 안에서 사요에 대한 인식은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를 향한 개혁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먼저 류병덕은 종교의 이론과 철학을 펼쳐가기 위한 사회적 실천덕목이 필요한데, 원불교에서는 이를 사요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사회를 완전한 사회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덕목이라고 하였다.¹⁵⁾ 이러한 논리에 호응하여 김홍철, 서경전 등도 사요가 곧 사회개혁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⁶⁾ 사요가 기존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 원리이며, 이를 통해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완전하고 평등한 구조로 완성해 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택은 사요가 원불교의 신앙관을 바탕으로 한 ‘불공’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요가 사회해체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상생적 성격을 띤다는 이중구조로 설명을 하면서도, ‘해체’를 통한 진화론적 발전이 곧 ‘상생’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논리의 전개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그의 논리는 곧 사회의 해

15)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서울: 시인사, 1986(초판:1978)), p.48.

16) 김홍철, 『원불교사상론』(익산: 원광대출판국, 1980), pp.75-107; 서경전, 『원불교와 인간회복론』(익산: 원광대출판국, 1981), pp.258-268 참조.

체와 재구성을 상생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원리로서 사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개혁적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불교 교리의 실천원리인 사요는 ‘사회개혁’의 방향에서 이해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요의 원리는 특정 사회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의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사요는 시대성을 요청받게 된다. 하지만 사요는 시대와 사회라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것은 일원상 진리라는 본질과 그 현현인 사은의 실천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결국 인간 존재가 지향해야 할 바 실천의 원리는 이상의 네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요 가운데서도 원불교의 교육관 혹은 교육의 이념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 ‘타자녀교육’이다. 따라서 타자녀교육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실천의 향방도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타자녀교육을 통해 원불교의 교육관 및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살펴보자.

1. ‘타자녀교육’과 원불교의 교육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불교 교리에 있어 사요는 소태산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자력양성·지자본위·타자녀교육·공도자승배이다. 그 중에서도 타자녀교육이란,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¹⁷⁾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특히 ‘과거 교육의 결함조목’으로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①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음이고,
- ②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음이고,
- ③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음이고,
- ④ 언론과 통신 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교환이 적었음이고,
- ⑤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¹⁸⁾

소태산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비단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인식과 대응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

17) 『정전』 제3장 사요, 『원불교전서』(익산: 원불교정화사, 1995), p.43.

18) 위와 같음.

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태산은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필요성의 인식 공유와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 보편화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태산의 인식은 당시의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던 교육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교육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차별’을 당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조선사회를 통해 볼 때, 교육은 곧 기득권 세력인 양반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학이 관학화(官學化)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교육은 출세지향적인 특정 계층이 과거(科擧)에 의해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소태산이 지적하고 있는 ‘과거 교육의 결함조목’은 기존 사회의 교육이 보여 왔던 특권적 향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제도적으로 이를 보편화시키지 못하였으며, 또 교육을 받는 주체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관습에 의해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소태산은 내 자녀와 타자녀의 구분 없이 교육을 실행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태산의 타자녀교육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혁신’과 개개인이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그 핵심 맥락을 이해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타자녀교육의 정신은 소태산 이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조우하여 그 해석의 방향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원형 혹은 본질을 충분히 살려가려 한다. 1945년 해방 후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鼎山宋奎宗師: 1900-1962)는 타자녀교육의 교육관을 현실의 사회에 직접 적용하여 실천해 간다. 대표적으로 정산종사의 재임기간에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唯一學林)이 설립(1946)되고, 원광중학교(1951), 원광고등학교(1954), 원광여자중학교(1956), 원광여자고등학교(1960) 등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정산의 교육관은 그의 저서인『건국론』(1945)과 『세전』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산은 『건국론』에서 독립된 대한민국의 건국을 생각함에 있어 교육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초등교육 의무제, ②중학전문대학의 확장, ③정신교육의 향상, ④예의교육의 향상, ⑤근로교육의 실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산은 국가가 자립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무조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¹⁹⁾ 또한 『세전』에서는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할 것’이라고 하여 교육이 곧 모든 인류를 진화로 이끄는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산의 주장은 소태산으로부터 이어 온 타자녀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정산은 이러한 교육관을 기반으로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글보급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고, 나아가 유일학림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사료의 타자녀교

19) 『건국록』 제4장 교육, 『원불교교고총간』 제4권 초기교서편 『부록』(익산: 원불교정화사, 1970), pp.21-22.

육 이념에 기반하여 교육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향도하려 하였던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산은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확보해 가는 동시에 정규과정을 통해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삼동야학, 도양고등공민학교, 원광고등공민학교 등을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가려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타자녀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개혁과 소외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었으며, 소태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원불교의 근본정신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大山金大舉宗師, 1914-1998)는 사요가 곧 세상을 고르는 길이요 평등세계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력양성을 통해 인권평등이, 지자본위를 통해 지식평등이, 타자녀교육을 통해 교육평등이, 공도자승배를 통해 생활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⁰⁾ 이후 원불교에 있어서 사요는 일원상 진리의 현상적 전개인 사은의 상즉성을 바탕으로, 이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실천해 가고자 하는 ‘평등운동’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타자녀교육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이며, 원불교 교육의 교리사상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산의 이와 같은 ‘평등주의’는 이후 제 학자들의 사요에 대한 해석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를 타자녀교육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소태산과 정산에 의해 이어 온 원불교 교육의 사회개혁과 소외의 회복이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산의 ‘교육평등’은 이후 원불교 교육관 및 원불교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교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산이 제시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교육의 문제에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김귀성은 교육에 있어 평등은 교육기회의 균등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현대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기회균등은 선발, 경쟁, 공교육 등과 같은 용어에서 느끼듯 제도권교육 즉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적용됨으로 인하여 학교 밖의 교육, 소위 가정, 사회교육의 기회균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²¹⁾고 하였으며,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단지 학교교육에 접근가능여부만을 언급할 뿐 실제로 그 다음 문제인 누가, 누구를,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²²⁾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원불교 교육평등관의 의미를 ‘유산자와 무산자,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교육제도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구조, 잘 가르치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타자녀교육의 교육관을 제도권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의 기회

20) 『정전대의』 8, 사요, 『대산종사법어』 1집(익산: 원불교출판사, 1986), pp.33-37.

21) 김귀성, 『원불교의 교육평등관』, 『원불교사상』 13집(익산: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990), p.115.

22) 김귀성, 같은 글.

와 범주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점에 원불교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산의 교육평등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소태산 이후 이어온 타자녀교육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실의 교육문제에 적용하려 한 논리로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

2. ‘타자녀교육’과 원불교 대안교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불교의 교육관에 있어 타자녀교육의 관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석의 가치가 현재의 원불교 교육이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불교의 대안교육에 대한 가치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그 실천적 의지가 어떠한 방향성을 띠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원불교 대안교육의 현황을 볼 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불교 대안교육이 타자녀교육의 사상적 근거를 충실하게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불교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개개인들을 교육에 대한 ‘소외’와 ‘차별’로부터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²³⁾ 이는 앞서 살펴 본 타자녀교육의 정신이 현실을 통해 해석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의 효시가 된 영산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에 있어서는 최초로 성지송학중학교 인가를 받는 등 원불교 대안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이 가진 한계와 그로 인해 교육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빠른 대처로 사회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나갔다. 특히 1996년 2월 MBC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13시간 특별 생방송을 내보내며 유일한 대안교육의 장으로 영산성지고를 지목한 이후, 대안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입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대안학교는 특성화학교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학교에 대한 각종 제재조항이 삭제된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인 1997년 10월 17일, 영산성지고는 국내 최초로 이 법에 의해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대안학교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다.²⁴⁾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사회에 만연한 공교육의 폐해로부터 새로운 교육형태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이후 국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타자녀교육을 통해 기존의 교육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정신이 현실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3) 《원불교신문》2005년 4월 22일 “대안교육 현장을 찾아서”

24) 《원불교신문》2002년 11월 8일자 “대안교육의 산과 꼭진영 도무”

아울러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철저하게 공교육으로부터 ‘소외’·‘차별’된 이들이 제도권 교육과는 차별화 되면서도 근본적으로 기존의 교육체제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을 이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도 또한 타자녀교육의 교육관이 소외로부터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사상적 이념을 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지향해 온 두 가지의 방향은 또한 향후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지향해 갈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타자녀교육의 정신에 기반하여 교육개혁의 선도에 서서 주체적으로 현실의 교육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향후 한국사회의 교육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든지, 교육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불교 대안교육이 지향해 갈 방향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원불교 대안교육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대안교육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일원상 진리와 사은의 상즉적 관계성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원상진리와 사은의 상즉성은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연적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교육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이와 같은 상즉적 원리는 앞의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가 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 대안교육의 사상적 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의 교육체제가 서로의 관계를 상생적 관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반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원불교 대안교육의 근간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존재들이 서로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인식과 관계의 소외·차별로부터 본래의 인간가치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과정이 원불교 대안교육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원불교 대안학교에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상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불교 마음공부는 나와 대상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과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관계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연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나 자신의 내적 변화와 사회 및 세계의 변화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원불교 마음공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 마음공부는 원불교 대안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교육, 공동체생활 및 협동교육, 예절교육, 공익실천교육, 자리아타의 배려를 지향하는 교육 등도 또한 모든 존재가 필연적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인식을 토대로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IV. 원불교 대안교육의 문제와 지향점

2005년 ‘대안교육의 제도화’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부터 대안학교의 제도화는 언제나 ‘양날의 칼’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즉 대안학교가 제도화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으로, 첫째는 제도화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이 쉬워지게 되면서 무분별한 대안학교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부가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신 기존 공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강요하면서 대안학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육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대안학교가 제도화를 요구할 만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심은 자연히 급격히 증가하게 될 대안학교의 정체성 문제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代案)이란 말은 기존의 안에 대해 새롭게 내놓은 안이라는 뜻의 ‘Alternative’의 번역어로 반대를 넘어서 기존 제도에 수정을 가해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대안은 획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²⁶⁾ 그러므로 대안학교의 출현은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제도적으로 이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수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인가형과 비(미)인가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인가형으로는 10개의 대안중학교와 25개의 대안고등학교가 있다. 이에 대해 비(미)인가형 대안학교는 그 수효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략 150-200개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불교의 대안학교는 1998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영산성지고등학교가 개교한 이래 10여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원불교 대안학교는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인가형 대안학교이다. 대안이라는 의미가 기존제도를 바탕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이라면, 원불교는 대안학교의 의미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많은 외부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외부적 문제로 가장 큰 것은 기존의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대안교육의 제도적으로서의 정착이 결국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대안학교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²⁷⁾ 이에 대해 내부적 문제를 들자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속에서 원불교 교단이 지향해 갈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²⁸⁾ 문제의 요

25) 《한겨레신문》2005년 2월 27일, “국회에 간 대안학교 ‘대안학교 법제화’”

26) 최석민, 『대안학교의 개념적 준거 탐색』, 『교육학논총』 제27권 1호(2006), p.3.

27) 《원불교신문》2012년 7월 6일, “대안교육, 대외환경에 경쟁력 갖춰야”

28) 《원불교신문》2009년 7월 17일, “대안교육 초기정신 살려야”

인을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였으나, 문제의 본질은 결국 원불교 대안교육이 향후 어떠한 정체성을 추구해 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안교육은 첫 시작이 공교육의 발달과정에서 뒤틀려버린 교육 주체간의 관계회복과 교육 주체의 원상회복을 그 첫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²⁹⁾고 말할 수 있다. 원불교 대안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아, 중도탈락자를 위해 제도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고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애초 대안교육은 시민사회의 운동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에서 대응의 방식이 달랐다. 즉 시민사회의 경우 대안교육을 입시위주의 획일화되고 억압적인 공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인성중심, 자연친화적인 교육 등을 주창하면서 나온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안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³⁰⁾

이렇듯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안교육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시민사회가 기존의 공교육이 가진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부의 경우 기존의 공교육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제도적 보완’의 의미로 대안교육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는 대안학교를 제도적으로 학력인정과 비인정의 대안학교를 구별하였으며, 대안교육일반학교,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대안학교 등은 제도권 하에서 학력을 인정한 반면, 평생교육시설, 학교 외 단체의 대안학교, 재택학교 등은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속에서 대안학교는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권 교육의 틀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제도 자체를 떠나 자유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가가 인정하는 인가형 대안학교는 재정지원과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자유로운 교육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며, 비(미)인가형 대안학교는 교육내용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재정 지원이나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예측되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권 교육의 틀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초기에 원불교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도권 교육의 틀에 의해 다시 규정이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원불교 대안교육의 큰 숙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종교의 교육에 대한 주체성, 정체성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해보고 싶다. 다만 본고에서는 원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종교적 입장에서 원불교 대안교육이 어떠한

29) 《원불교신문》2002년 11월 8일, “대안학교란?”

30)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2004), pp.117-136 참조.

방향성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제도권 내 교육으로서 기존의 공교육과 병행하면서도 차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측면에서 원불교의 대안교육 외부적 환경에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의 방식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급증하는 대안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원불교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한 기존의 대안학교를 보면서 장점을 취해 개교하는 공립대안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대안학교를 흡수해 나가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³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불교의 대안학교는 어떠한 대응을 해 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자칫 원불교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이 경쟁적인 구도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불교의 대안교육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이 지향해왔던 근본정신은 기존 공교육이 입시위주의 강압식 교육체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인성을 중시하며,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습해 가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대안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대안교육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되거나, 혹은 기존의 공교육의 체계가 대안교육의 패턴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을 때, 종립학교 특히 원불교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논자는 이에 대해 ‘원불교 대안학교만의 상품가치를 개발할 것’ 혹은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집결하여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할 것’ 혹은 ‘마음공부만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에 새로운 차별화를 시도할 것’ 등의 제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는 원불교 대안교육이 가지는 본래정신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안교육이 보편화되고, 공립대안학교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안교육을 ‘보완적’ 의미로 수용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학력인증의 유무를 물론하고 대안학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표출이요, 한국사회가 기존의 공교육체제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불교의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의 ‘경쟁력’을 논하면서 학교의 존재 혹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불교 대안교육의 첫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인식과 그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불교 대안학교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던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

31) 《원불교신문》2012년 7월 6일, “대안학교, 대외환경에 경쟁력 갖춰야”

에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대안학교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경쟁이라는 구도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된다면 그 본래의 목적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대안교육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대안교육’이라는 명칭이 더 이상 ‘대안’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불교 대안교육이 지향할 바는 공교육의 소외와 차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추구해 가는 데 그 본래의 목적성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안교육이 범람하고, 공교육이 기존의 대안교육을 보편화 해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불교의 대안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소외와 차별현상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불교의 교육방향 혹은 대안교육의 방향은 사요의 원리, 그 중에서도 타자녀교육의 원리에 바탕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나아가 소외와 차별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실천해 가는 정신성과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종 제기되는 문제로 원불교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곤 한다.³²⁾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다른 종립학교 대안교육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말하고 경쟁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그 바탕에는 무한경쟁에 내몰린 종교들의 포교주의와 교단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과연 대안교육의 무한경쟁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이끌어 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반복된다면 그것이 과연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싶다면, 얼마나 본래의 정신성을 토대로 기존의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의 양상이 변모해 가고 있으며, 그에 원불교의 대안교육이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새로운 대안교육의 실천적 운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원불교 대안교육이 다른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논자는 생각한다.

둘째, 그렇다면 원불교 교단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으로 접근하고, 또 변화하는 대안교육에 응해갈 것인가? 결국은 앞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원불교 교단의 의지는 원불교 대안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교단의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재차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원불교에는 앞에서 제시한 대안학교 외,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대학과, 원광중·고등학교, 원광여자중·고등학교,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해룡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단 교육정책이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에서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불교의 교육에 대한 방향이 궁극적으로 지

32) 《원불교신문》2006년 4월 14일, “원불교 ‘대안교육’의 미래”

향해 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원불교의 교리사상적 근간이 되는 일원상 진리와 사은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실천적 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교단 내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원불교 교육 혹은 대안교육이 일원상 진리와 사은의 상즉성, 그로부터 표출된 사회 실천의 의지인 사요에 의해 그 교리사상적 연원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원불교의 교육에 대한 비전이, 혹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한 비전이 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불교의 근본정신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인식을 공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불교의 사요정신이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소외·차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불교 교육과 대안교육의 정신도 사요의 타자녀교육 정신을 근간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원불교 교단에서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행하는 관점에서 대안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단 내에서는 대안교육의 새로운 장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는 미혼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등 사회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대상들을 향한 대안교육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원불교가 대안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이제는 대안교육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미래의 교육이 지향해 갈 바를 고민하고, 다시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책임으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V.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원불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안교육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요, 현실의 문제로부터 대안교육을 바라봐야 하는 교육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본고의 논의는 다소 관념적인 제언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자가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원불교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사요의 타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요, 또 사회개혁과 소외·차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지향해 가야 할 것이라는 점은 향후 원불교 교육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항상 그 근본적인 정신성으로 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불교 대안교육은 초기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범위를 새티

민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대안교육에 대한 교단의 정책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된 이들을 향해 치유와 회복을 담당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논자는 이와 같은 방향이 대안교육의 근본정신을 충실히 실천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또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면 언제나 그 본래의 정신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돌이켜보고, 그 근원으로 회귀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건국론』(『원불교교고총간』 제4권 초기교서편, 익산: 원불교정화사, 1970).
- 『정전』(『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정화사, 1995).
- 『정전대의』(『대산종사법어』 1집,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6).
- 김귀성. 「원불교의 교육평등관」. 『원불교사상』 13집. 익산: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990.
-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2004.
- 김홍철. 『원불교사상론』. 익산: 원광대출판국. 1980.
- 남기석.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대안교육」. 『시민인문21』.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1986(초판:1978).
- 서경전. 『원불교와 인간회복론』. 익산: 원광대출판국. 1981.
- 최석민. 「대안학교의 개념적 준거 탐색」. 『교육학논총』 제27권 1호. 2006.
- 황준성 · 이해영. 「대안교육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2권 1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 《원불교신문》
- 《한겨레신문》
- <http://www.yssj.hs.kr/>
- <http://www.wonkyung.hs.kr/>
- <http://hwarang.school.gyo6.net/>
- <http://sjsh.ms.kr/>
- <http://www.heonsan.ms.kr/>
- <http://www.jipyongseon.kr/>
- <http://www.han.hs.kr/>
- <http://eh-school.sc.kr/>

원고접수 : 2012년 11월 20일 / 1차 심사: 12월 6일 /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 권동우(權東祐)

- ① 전공 : 신화, 종교문화 / 소속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② 관심영역 : 불교-기독교 비교, 한국종교, 일본종교, 종교와 평화
 - ③ 주요논저 : 「초기원불교의 신화적 변용에 관한 연구」,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 재고」, 「삼국유사 사찰연기설화의 신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등
 - ④ E-mail : susanowo0428@gmail.com
-

Abstract

***Won*-Buddhism and Alternative Education: Education Aimed to Heal Marginalization and Promote Social Reform**

Kwon, Dongwoo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in Wonkwang Univ.

Won-Buddhism currently operates and manages 5 high schools, 4 middle schools, and 10 alternative schools. Educational authorities acknowledge these alternative schools for their academic ability and thereby include them in the list of approv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he operation of *Won*-Buddhism's alternative education as well as alternative schools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n alternative school history. This being the case, what kind of ideological background does it use as a foundation to develop and maintain this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This study uses *Won*-Buddhism's doctrine as a basis to reveal that *Won*-Buddhism alternative schools develop by focusing on the section, "Educating Others' Children" of The Four Essential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spirit of The Four Essentials has the Truth of Il-Won-Sang as its basis which is another expression of The Fourfold Grace. In other words, it i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s that we rely on for our existence. Hereafter, it becomes clear that *Won*-Buddhism's alternative education aims for an education that starts from The Four Essential's spirit of 'socialreform,' 'marginalization' and 'discrimination' to 'healing' and 'recovery.'

Through such ideological awareness,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of *Won*-Buddhist alternative education and argues that we should not use alternative education as a means of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lourishing along with the universalization of *Won*-Buddhist's alternative education, but instead examine existing education and determine what kinds of opportunity for equal education we are going to give to those who are marginalized and then propose a plan for the future direc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Key words : *Won*-Buddhism, Alternative Education, Educating Others' Children, Marginalization, Discrimination, Socialreform